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5. 6(일) / 총 1매(본문1)
담당 부서	국토정책과	담당자	·과장 김규철, 사무관 최찬 ·☎ (044) 201-3646, 4733
	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발전전시관팀		·팀장 김상범 ·☎ (02) 3425-8910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수백억 들인 ‘국토발전전시관’, ‘독도’는 없고 ‘일본해’만”보도 관련

- 국토발전전시관에서는 항공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내용을 소개하기 위하여 항공기의 항로를 보여주는 지도 영상을 전시해 왔으나,
 - 이 과정에서 활용한 해외 항로사이트의 지도상에 일본해가 병기되어 있는 등의 문제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영상이 표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.
- 이에, 국토발전전시관은 관련 영상을 5.6일부로 중단하고, 제작 업체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바로 잡도록 조치하였고,
 -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시물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아시아경제, 5.6) >

- ◆ 수백억 들인 ‘국토발전전시관’...‘독도’는 없고 ‘일본해’만
 -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발전 역사를 소개하기 위하여 18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11월 개관
 - 해외 안내사이트를 활용하여 항공경로를 설명하는 지도상에 동해보다 일본해 우선 표기되고, 독도의 경우에는 표기조차 되어 있지 않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최찬 사무관 (☎ 044-201-4733), 국토발전전시관 김상범 팀장(☎ 02-3425-891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